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329>

JCCT 2023-11-40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김혜숙*, 박미화**, 최은영***

Hye-Suk Kim*, Mi-Hwa Park*, Eun-Young Choi***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도 소재 3개 대학의 간호학과 3,4학년 193명이며, 2021년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의 3단계 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은 자아탄력성($r=.43, p<.001$), 비판적 사고성향($r=.51,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탄력성은 비판적 사고성향($r=.58,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탄력성과 셀프리더십과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Z=5.05, p<.00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어 :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탄력성, 간호대학생, 셀프리더십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resilience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93 third-year and fourth-year nursing students from three universities in G Province,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 to November 19, 2021.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WIN 23.0 program. The mediation effect was analyzed using Baron and Kenny's three-step procedure,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on effect was verified using the Sobel test. As a result of this study, self-leadership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go resilience($r=.43, p<.001$)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r=.51, p<.001$), and ego resil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r=.58, p<.001$).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resilience and self-leadership(Sobel test: $Z=5.05, p<.001$).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n integrated approach is needed to improve ego resili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Key words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go-resilience, Nursing student, Self-leadership,

*정희원,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1저자)
**정희원,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참여저자)
***정희원, 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9월 2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일

Received: September 25, 2023 / Revised: October 14, 2023
Accepted: November 1, 2023
***Corresponding Author: seraphinac@hanmail.net
Dept. of Nursing, Chosun Nursing College

I. 서론

변화와 위기가 상존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높은 지식수준과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조직에 대한 강한 일체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1].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간호사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확고하게 인식하여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셀프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2].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과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건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변화시키는 탐구과정으로[3], 셀프리더십이 높으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고[4],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5],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6]. 셀프리더십이 개인차원에서는 자기관리, 자아실현, 자아존중감 등 개인의 내적 특성과 관련 있으며, 조직차원에서는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과 연관이 있음을 고려할 때[5], 교육과정 설계 시에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노력은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미로 보인다.

자아탄력성은 삶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서 개인의 적응, 사회적 능력, 신체적·심리적·사회적 well-being을 이끌기 위해 대처하는 개별화되고, 통합된 개인의 자원이자 능력으로[7],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포함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활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8]. 특히 이론과 실습,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내·외부 문제 환경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9] 간호대학생에게 자아탄력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학습이나 교육에 의해 전략적으로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다[6].

비판적 사고는 주어진 상황과 내용에서 근거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 및 추론하는 능력이 뛰어나다[10]. 따라서 독자적이고 비판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임상에서 간호사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이다[11]. 간호교육은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의료현장에서 일반적인 간호제공 보다는 주어진 다양한 상황에서 정보를 종합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고자 한다[12].

개인의 사고와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인 힘인 셀프리더십과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뜻하는 자아탄력성,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비판적 사고성향[13]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역량 있는 간호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과정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ark과 Han[14]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이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이었고, Lee와 Cho[15]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은 자아탄력성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따라서 셀프리더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탄력성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의해 인과적 관계로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셀프리더십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G도 소재 3개 대학의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 중간 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예측변수 10일 때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가 147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7부를 제외한 19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11월 1일부터 19일까지였으며, 설문조사에 앞서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뒤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커피쿠폰을 제공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7]이 개발한 도구를 Yoo와 Shim[17]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은 대인관계 3문항, 활력 2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낙관성 2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Block과 Kremen[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2)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18]이 개발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부정적인 2개의 문항은 역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은 지적공정성 4문항, 신중성 4문항, 객관성 3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자신감 4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 개

발 당시 Cronbach's α 는 .84이었으며[18],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19]이 개발한 도구를 Shin 등[20]이 번안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행동 중심적 전략의 하위영역인 자기목표설정 5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단서 2문항, 자기관찰 4문항, 자기차별 4문항과 건설적 사고전략의 하위영역인 자기대화 3문항, 자연적 보상 5문항, 신념과 가정 분석 4문항, 성공적인 수행 상상하기 5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19],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셀프리더십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아탄력성과 셀프리더십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는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Baron과 Kenny[21]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성을 확인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증은 잔차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23'가 171명(88.6%)으로 가장 많았고, '여자'가 165명(85.5%)이었으며, 3학년이 89명(46.1%), 4학년이 104명(53.9%)이었고, 종교는 '있다'가 96명(49.7%)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Table 1. Self 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N(%)	Self leadership		
			Mean±SD	t or F	p
Age	20-23	171(88.6)	3.42±0.52	-1.05	.294
	24-30	22(11.4)	3.54±0.37		
Sex	Female	165(85.5)	3.43±0.52	-0.59	.559
	Men	28(14.5)	3.49±0.38		
Grade	Junior	89(46.1)	3.47±0.47	0.98	.329
	Senior	104(53.9)	3.40±0.53		
Religion	Yes	96(49.7)	3.50±0.52	2.01	.046
	No	97(50.3)	3.36±0.48		
Personality	Very optimistic	18(9.3)	3.63±0.54	1.91	.150
	Optimistic	139(72.0)	3.43±0.49		
	Pessimistic	36(18.7)	3.35±0.50		
Thinking for nursing professionalism	Optimistic	161(83.4)	3.44±0.48	0.39	.697
	Pessimistic	32(16.6)	3.40±0.61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guarantee	95(49.2)	3.43±0.51	0.07	.992
	Aptitude	38(19.2)	3.40±0.55		
	High school record	10(5.2)	3.44±0.30		
	Recommendation of parent or others	44(22.8)	3.46±0.51		
	Service to others	6(3.1)	3.44±0.23		
Hospitalization	Yes	102(52.8)	3.46±0.55	0.68	.500
	No	91(47.2)	3.41±0.44		

성격은 ‘매우 긍정적’이 18명(9.3%), ‘긍정적’이 139명(72.0%)이었으며, 간호직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 161명(83.4%)이었다. 간호학 지원 동기는 ‘취업이 잘되어서’ 95명(49.2%), ‘부모님이나 주변의 권유’ 44명(2.8%), ‘적성에 맞아서’ 38명(19.7%) 순으로 나타났고, 입원경험은 ‘있다’가 102명(52.8%)이었다.

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셀프리더십 정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34점,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50점,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43점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가 3.77점으로 가장 높았고, 활력 3.51점, 감정통제 3.24점, 호기심 3.21점, 낙관성 2.94점 순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하위영역 중 객관성이 3.99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적공정성 3.80점, 건전한 회의성 3.61점, 자신감 3.47점, 지적열정/호기심과 체계성은 각각 3.26점, 신중성 3.25점 순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하위영역 중 자기보상이 3.73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관찰 3.60점, 자기처벌 3.56점, 신념과 자기분석 3.55점, 자기대화 3.41점, 자기단서 3.38점, 성공적 수행 상상하기 3.32점, 자연보상 3.26점, 자기목표 설정 3.25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ean±SD
Ego resilience	2.29	4.86	3.34±0.50
Interpersonal relationship	2.67	5.00	3.77±0.50
Curiosity	1.20	5.00	3.21±0.80
Emotional control	1.00	5.00	3.24±0.77
Vitality	1.50	5.00	3.51±0.67
Optimistic attitude	1.00	5.00	2.94±0.75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52	4.78	3.50±0.40
Prudence	2.50	4.50	3.25±0.39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1.20	5.00	3.26±0.69
Self-confidence	1.25	5.00	3.47±0.62
Systematicity	1.00	5.00	3.26±0.72
Intellectual integrity	1.75	5.00	3.80±0.53
Healthy skepticism	1.75	5.00	3.61±0.62
Objectivity	2.67	5.00	3.99±0.50
Self leadership	1.97	4.89	3.43±0.50
Self-goal setting	1.40	5.00	3.25±0.70
Self-compensation	1.00	5.00	3.73±0.84
Self-observation	1.25	5.00	3.60±0.89
Self-cues	1.00	5.00	3.38±0.79
Self-punishment	1.00	5.00	3.56±0.67
Imagine a successful performance	1.00	5.00	3.32±0.78
Self-talk	1.00	5.00	3.41±0.90
Belief and self-analysis	1.00	5.00	3.55±0.73
Natural compensation	1.80	5.00	3.26±0.64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종교(t=1.91 p=.046)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종교가 있는 경우에 셀

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령, 성별, 학년, 성격, 간호직에 대한 생각, 간호학 지원 동기 및 입원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자아탄력성($r=.43, p<.001$)과 비판적 사고성향($r=.5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r=.58,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3. 셀프리더십과 주요변수의 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and Self Leadership

Variable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Self leadership
	r(p)	r(p)	r(p)
Ego resilience	1		
Critical thinking	.58(<.001)	1	
Self leadership	.43(<.001)	.51(<.001)	1

5.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자기상관에 대한 Dubin-waston 지수는 2.09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었다.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67로 0.1 이상이었고, 독립변수들 간의 분산팽창요인 값은 1.00~1.49로 10미만이므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탄력성과 셀프리더십과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매개변수임을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방정식을 사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인 비판적 사고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beta=.58, p<.001$), 2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인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3, p<.001$).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비판적 사고성향이 종속변인인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예측요인으로 하고, 셀프리더십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beta=.20, p<.001$)과 비판적 사고성향($\beta=.40, p<.001$)이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3단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자아탄력성은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2단계의 0.42에서 3단계의 0.19로 감소하여 비판적 사고성향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셀프리더십을 설명하는 정도는 28%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크기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과 셀프리더십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한 부분매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Z=5.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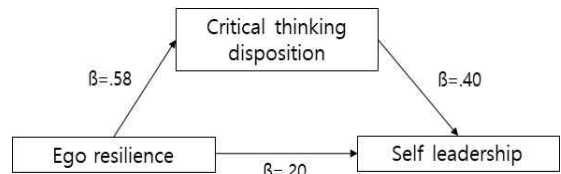


그림 1. 경로계수
 Figure 1. Path coefficient

표 4.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the Process that Ego resilience affects Self leadership

Equations	B	β	t	p	Adj. R ²	F	p
Step 1. Ego resilience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45	.58	12.67	<.001	.33	94.22	<.001
Step 2. Ego resilience → self leadership	0.42	.43	6.50	<.001	.17	42.21	<.001
Step 3.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self leadership					.28	38.49	<.001
1) Ego resilience → self leadership	0.19	.20	2.61	.010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self leadership	0.51	.40	5.35	<.001			
Sobel test: $Z=5.05,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비판적 사고성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요인이라는 선행연구결과[4,15]와 일치한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자아탄력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겠다.

자아탄력성과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스스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셀프리더십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15,22], Je와 Bang[4]의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 영향요인 중에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함으로써 셀프리더십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상호작용을 통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자아탄력성과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으므로 학습자의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즉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셀프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비판적 사고성향을 매개로 하였을 때,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정도는 5점 만점에서 3.34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간호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Kim과 Jo[23]의 연구에서의 3.73점보다는 낮았으나, 간호학과 1,2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Park과 Byun[24]의 연구에서의 3.43점과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스트레스나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잘하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부영역에서는 대인관계가 가장 높았고 활력,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인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Kim[25]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문의 특성과 임상현장에서 환자 및 다양한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강조하는 교육내용을 통해 대인관계가 개발되어 나타난 결과[26]로 생각된다. 가장 낮게 나타난 낙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낙관적 태도를 붙여넣는 기회와 적절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간호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낙관적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연구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서 3.50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 3,4학년을 측정한 Kim[25]의 연구에서의 3.62점보다는 낮았으나, 간호대학생 1~4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Kim과 Hwang[27]의 3.34점보다는 높았으며, Kim[28] 연구에서의 3.50점, Kim과 Kim[29] 연구에서의 3.49점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비판적 사고는 간호계가 추구하는 간호사의 중요한 역량의 하나로, 학습 환경 및 교수법과 사회적 배경을 포함한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향상되므로[30],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방법과 교육환경 개선, 교과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1]. 하부영역에서는 객관성이 가장 높았고, 신중성이 가장 낮아 Kim[28]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Chaung[32]의 연구에서는 체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Kim[33]의 연구에서는 지적공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체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Kim과 Kim[29]의 연구와 Lim[31]의 연구에서는 지적공정성이

가장 높고 신중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처리를 성급하게 하지 않고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신중성과,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내적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인 체계성은 임상경험이 부족한 간호대학생에게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났다으므로 교과과정 내에 신중성과 체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더욱 강조하여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5점 만점에서 3.43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같은 도구로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Lee와 Cho[15] 연구의 3.42점, Lee[8] 연구의 3.41점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간호대학생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28] 연구의 3.57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책임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가 겸비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며[34], 간호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 요소이므로[23],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교과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부 영역에서는 자기보상 영역이 가장 높았고, 자기관찰, 자기치별, 신념과 자기분석, 자기대화, 자기단서, 성공적 수행 상상하기, 자연보상, 자기목표설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목표를 설정한 후 스스로 실행에 옮기며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여 이뤄낸 일의 결과에 대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행동중심적 전략은 미래에 간호리더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대학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22].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셀프리더십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자기목표설정 영역의 부족함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 강조하는 훈련과 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종교가 있는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 Kim[24]의 연구에서도 종교가 있는 경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연구결과,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셀프리더십을 높일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규명하였고, 자아

탄력성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비판적 사고성향을 매개로 하였을 때,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추후 간호학생의 스스로 주도하는 자율적인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써 비판적 사고성향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은 셀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자아탄력성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았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은 자아탄력성과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으므로,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 전략은 셀프리더십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하여 비판적 사고성향 향상에 초점을 둔 다양한 교수법과 교과 외 프로그램의 적용 및 그 효과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아탄력성 요인을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H.J. Won, and S.H. Cho, "A Review of Research on Self-leadership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9, No. 3, pp. 382-393, June 2013. <http://dx.doi.org/10.1111/jkana.2013.19.3.382>
- [2] M.S. Kim,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lleg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3, No. 2, pp. 184-193, 2017.
- [3] C.C. Manz, and H.P. Sims, "Supper Leadership:

-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Vol. 19, pp. 18-35, 1991. [http://dx.doi.org/10.1016/0090-2616\(91\)90051-A](http://dx.doi.org/10.1016/0090-2616(91)90051-A)
- [4] N.J. Je, and S.Y. Bang, “The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Self-Concept of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Students on Self Leadership,”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2, pp. 825-835,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12.825>
- [5] Y.S. Kang, Y.J. Choi, D.L. Park, and I.L. Kim,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6, No. 2, pp. 143-151, 2010.
- [6] W.J. Park,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3, pp. 240-250, September 2009.
- [7] Y.W. Jeong, and J.A. Kim, “A Concept Analysis of Ego-Resilienc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7, No. 6, pp. 644-655, December 2015. <http://dx.doi.org/10.7475/kjan.2015.27.6.644>
- [8] J.S. Lee,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0, pp. 253-260,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0.253>
- [9] J. Block, and A.M. Kremen, “IQ and Ego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1996. <http://dx.doi.org/10.1037/0022-3514.70.2.349>
- [10] K.R. Shin, J.Y. Ha, and K.H. Kim, “A Longitudinal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2, pp. 282-289, 2005.
- [11] J.A. Kim, E.H. Seo, and C.J. Kim,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the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Disaster Recogn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6, No. 1, pp. 23-31, 2018. <https://doi.org/10.17703/IJACT.2018.6.1.23>
- [12] K.H. Kim, and G.D.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f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3, No. 2, pp. 229-236, December 2007.
- [13] Y.S. Kang, Y.J. Choi, D.L. Park, and I.J. Kim,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6, No. 2, pp. 143-151, 2010.
- [14] H.S. Park, and J.Y. Ha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6, No. 3, pp. 695-706, 2015. <https://dx.doi.org/10.7465/jkdi.2015.26.3.695>
- [15] D.Y. Lee, and J.H. Cho, “Convergence Influence of Self-Resilience, Critical Think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10, pp. 561-569, 2018. <https://doi.org/10.15207/JKCS.2018.9.10.561>
- [16] H.N. Moon, and M.H. Sung, “Impact of Ego-Resilience, Self-Leadership and Stress Coping on Job Satisfaction in Emergency Department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5, No. 4, pp. 268-276, 2016.
- [17] S.K. Yoo, and H.W. S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Vol. 16, No 4, pp. 189-206, 2002.
- [18]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4.
- [19] J.D. Houghton, and C.P. Neck,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17, No. 7, pp. 672-691, 2002. <https://doi.org/10.1108/02683940210450484>
- [20] Y.K. Shin, M.S. Kim, and Y.S. Han,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6, No. 3, pp. 313-340, 2009.
- [21] R.M. Baron, and D.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pp. 1173-1182,

- 1986.
- [22]S.Y. Lee, S.Y. Jeon, and Y.Y. Kim, “The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10, No. 1, pp. 155–165, march 2016. <http://dx.doi.org/10.12811/kshsm.2016.10.1.155>
- [23]J.H. Kim, and E.J. Jo,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Major Satisfaction on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 7, No. 3, pp. 147–161, September 2020. <http://dx.doi.org/10.2049/cpew.2020.7.3.147>
- [24]S.H. Park, and E.K. Byun, “Effe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Humor Sense, and Ego Resilience on Adjustment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0,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256>
- [25]A.L. Kim,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9, No. 4, pp. 2247–2261, August 2017.
- [26]Y.S. Park, and Y.H. Kwon,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341–350, 2013.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341>
- [27]K.H. Kim, and E.H. Hwang,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n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436–445,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436>
- [28]M.Y. Kim, “Impact of Self-Leadership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14, pp. 299–316, 2017. <https://dx.doi.org/10.22251/jlcci.207.17.14.299>
- [29]Y.A. Kim, and K.S. Kim, “The Relationships among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passion Fatigue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8, pp. 387–399, August 2019.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8.034>
- [30]C.J. Brahler, I.J. Quitadamo, and E.C. Johnson, “Student Critical Thinking is Enhanced by Developing Exercise Prescription using Online Learning Modules,” *Advances in Physiology Education*, Vol. 26, No. 1, pp. 210–221, 2002.
- [31]M.H. Lim,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n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8, pp. 560–568,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8.560>
- [32]S.K. Chaung, “Change of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1, pp. 37–42, February 2020.
- [33]Y.S. Kim,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7, pp. 100–108, 2020. <https://doi.org/10.5762/KAIS.2020.21.7.100>
- [34]H.J. 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227–236, 2015. <http://doi.org/10.5977/jkasne.205.21.2.227>